



인(印) · 일(日) FTA 타결 영향과 대응

조 충 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chcho@kiep.go.kr, Tel: 3460-1025)

최 윤 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송 영 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1. 인(印) · 일(日) FTA 타결 경위 및 의의
2. 인도와 일본의 FTA 추진 배경
3. 인도시장에서 한·일 경쟁관계 및 영향
4. 평가 및 대응



▶ 인(印) · 일(日) FTA(이하 인 · 일 FTA)가 공식협상 시작 3년 10개월 만인 2010년 10월 25일 공식 합의됨.

- 2009년 8월 한 · 인도 CEPA가 전격적으로 체결된 이후 중단됐던 인 · 일 FTA 협상이 긴박하게 추진되어 2010년 9월까지 3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타결됨.

▶ 인 · 일 FTA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인도와 ASEAN을 넘어 남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전략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인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FTA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남아시아의 거대 신흥시장을 확보하고자 함.

▶ 인 · 일 FTA 타결에 대해 양국은 상호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

- 인도는 일본의 복제약품 시장에 대한 진출과 전문인력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일본 역시 한 · 인도 CEPA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인 · 일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 · 일 FTA 체결로 양국간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등 4개 품목이 동일하며 이들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 58%, 일본 62%임.

- 일본과 경쟁 정도가 높거나 일본의 수출특화 정도가 높은 기계류,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의 경우 인 · 일 FTA가 발효되면 대인도 수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 · 일 FTA 체결로 한 · 인도 CEPA의 선점효과가 약화되는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함.

- 인 · 일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훼손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함.

- 특히 기계류 등 수출비중이 높으면서도 수출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 · 인도 CEPA 양허수준 및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도 측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인 · 일 FTA로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가속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1. (印)·(日) FTA

■ 인·일 FTA가 2007년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인 2010년 10월 25일 공식 타결됨.

– 일·인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한 만모한 싱 총리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안일 FTA체결에 공식합의하고 서명함.

– 이번 안일 FTA는¹⁾ 2010년 9월 일본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서 양국간 최종합의에 이른 후 약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임.

– 2006년 첫 공식협상이 시작되어 2009년 8월 공식 서명된 한·인도 CEPA와는 협상 개시 및 발효 시점 등에서 약 1년의 시차가 나지만 협상 기간은 3년 6개월(한·인도 CEPA)과 3년 10개월로 비슷함.

■ 인·일 FTA는 2005년 FTA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공동연구와 함께 11차례의 공식협상과 협상 중단, 3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타결됨.

– 인·일 FTA는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방인(印) 시 처음 언급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공동연구진(Joint Study Group)을 구성하여 2006년 7월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결과 보고서를 완성함.

– 양국 공동연구진은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에게 FTA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후 공동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발족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4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함.

○ 당초 인·일 FTA는 2007년 1월 공식협상 이후 2년 만인 2008년 12월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인도 복제의약품²⁾의 일본 진출 및 인력이동 등에서의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음.

– 2009년 8월 한·인도 CEPA가 전격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인·일 FTA 협상을 보다 긴박하게 추진하였고 2009년 9월~2010년 9월 동안 3차례의 협상을 진행시켜 최종타결되었음.

1) 인도 상무부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공식 표현하는데 언론 등에서는 주로 FTA로 표현함.

2) 일본은 복제약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도제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 기업들이 별도의 임상실험을 시행하여 임상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의약품 자료독점(data exclusive)'을 주장하였음.

표 1. 인·일 FTA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일시	내용	비고
2005. 4	FTA 추진 첫 언급	고이즈미 총리 방인시
2005. 6	공동연구진(JSG) 구성	
2006. 7	공동연구진(JSG) 결과 보고	
2006. 12	안일 FTA 공동태스크포스	
2007.1~2008.10	총 11차례 공식협상 실시	
2009.9~2010.9	총 3차례 추가협상 실시	
2010. 9. 15	인·일 FTA 최종합의	일본에서 차관급 회의
2010. 10. 25	최종서명	일본에서 최종서명

자료: 인도 상공부.

■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불과 약 1년 만에 체결된 인·일 FTA로 인해,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선점효과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도시장 내 수출품목구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도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일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다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2. FTA

가. 인도

■ 인도정부는 WTO를 통한 다자협상에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개도국 우대조치를 강하게 주장하여 실익을 추구하는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양자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함.

– 특히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인근 남아시아 및 동남아,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지역협력체 차원의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1991년 라오 전 총리가 아시아를 세계경제로 나아가는 발판(springboard)으로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본격화된 동방정책은 APEC 가입무산 이후 싱가포르, 태국, 아세안, 한국, 일본 등 각국과의 경험강화 전략으로 급전환됨.

■ 2004년 이후에는 수출산업 육성 및 수출다변화, 고용확대 등을 위해 대외통상정책을 보다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그 수단으로 하나로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함.

- 2004년 「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을 통해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중을 두 배로 늘리고, 수출산업을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세안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FTA 추진을 천명함.³⁾
- 2009년에 발표한 새로운 「대외무역정책 2009~2014」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장개척 활동 강화를 통한 수출다변화가 핵심정책으로 등장함에 따라 FTA 체결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힘.

■ 지난 십여 년간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도는 2010년 10월 현재 11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20여 개 국가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표 2. 인도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기체결된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	스리랑카	시행중(상품분야)(2001년 발효) ※ 서비스, 투자분야 협상완료-미서명
2	네팔	시행중(2002. 3. 6~2007. 3. 5 기간 시행후, 2007. 3. 6~12. 3. 4 기간 갱신)
3	아프가니스탄	시행중(2003. 3. 12 발효)
4	태국	시행중(82개 상품 무관세)(2004. 8 발효)
5	싱가포르	시행중(2005. 8. 1 발효)
6	SAFTA	시행중(2006. 7 발효)
7	부탄	시행중(2006. 7. 29 발효)
8	칠레	시행중(칠레, 2007. 8. 17 발효, 인도 2007. 9. 11 발효)
9	MERCOSUR	시행중(2009. 6. 1 발효)
10	한국	시행중(2010. 1. 1 발효)
11	ASEAN	시행중(상품분야)(2010. 1. 1 발효) ※ 투자, 서비스분야 협상중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12	일본	협상중(2010. 10 서명 추진)
13	말레이시아	협상중(2010년 내 타결 추진)
14	EU	협상중(2010년 내 타결 추진)
15	EFTA	협상중
16	GCC	협상중
17	모리셔스	협상중
18	이집트	협상중
19	BIMSTEC	협상중
20	SACU	협상중

3) 「FTP 2004~09」 시행 이후 2008~09년도 인도의 수출은 1,680억 달러로 2003~04년도 630억 달러에서 2.7배 증가하였으며, 국제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0.92%에서 2008년 1.64%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둬.

표 2. 계속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21	뉴질랜드	협상중, (2009. 2)공동연구 완료
22	호주	협상중, (2009. 8)공동연구 완료
23	인도네시아	협상 개시 예정, (2009. 9)공동연구 완료
24	캐나다	협상 개시 예정
25	러시아	공동연구 완료(2007. 7)
26	중국	공동연구 완료(2007. 10)
27	터키	공동연구 개시 합의
28	우루과이	제안됨 / 타당성 검토중
29	이스라엘	제안됨 / 타당성 검토중
30	베네수엘라	제안됨 / 타당성 검토중
31	콜롬비아	제안됨 / 타당성 검토중

자료: 인도 상공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정리.

■ 인도는 그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지역 최대 투자자인 일본과의 FTA 체결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왔음.

- 특히 인도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오늘날 동남아는 물론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식하고, 동방정책 추진 초기부터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음.
- 한·인도 CEPA 타결 및 발효를 먼저 추진한 것도 한 때 교착상태에 빠진 인·일 FTA를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도 측의 전략이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인도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FTA 타결에 적극적이었음.

나. 일본

■ 일본정부는 멕시코와의 FTA 체결 직후인 2004년 12월 FTA 정책의 기본방향(향후 경제연계협정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립하고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 3대 정책목표: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 및 경제이익 확보,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 정치·외교 전략상 일본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
- 이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SEAN을 가장 중요한 FTA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에 주력함.
 - 2002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2005년), 필리핀(2006년), 인도네시아(2006년)에 이어 2008년에는 ASEAN과의 FTA 체결에 성공함.

표 3. 일본의 주요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기체결된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싱가포르	2002. 1 체결 / 2002. 11 발효
멕시코	2004. 9 체결 / 2005. 4 발효
말레이시아	2005. 12 체결 / 2006. 7 체결
칠레	2007. 3 체결 / 2007. 9 발효
태국	2007. 4 체결 / 2007. 11 발효
인도네시아	2007. 8 체결 / 2008. 7 발효
브루나이	2007. 6 체결 / 2008. 7 발효
ASEAN	2008. 4. 체결 / 2008. 12 발효
필리핀	2006. 9 체결 / 2008. 12 발효
스위스	2009. 2 체결 / 2009. 9 발효
베트남	2008. 12 체결 / 2009. 10 발효
인도	2010. 9 최종협약 / 2010. 10 최종서명
협상 및 검토 중인 주요 FTA	
대상	진행상황
한국	2003. 12 개시 / 2004. 11 제6차 협상완료(중단)
GCC	2006. 9 개시
호주	2007. 4 개시 / 2010. 4 제11차 협상완료
페루	2009. 4 개시

자료: 일본 재무성.

■ 한편 일본은 2005년 4월 인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의 FTA 추진을 언급하고, 같은 해 6월 공동연구진(JSJ)을 구성하는 등 FTA 체결에 적극 나섬.

– 일본은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서⁴⁾ ‘ASEAN+3+3 FTA’를 제안, 동아시아에 인도를 적극 끌어들이.

– 일본은 인도가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거대 신흥시장으로 향후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FTA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함.

■ 일본정부는 거대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 진출에 대해 일본 산업계에 경고하는 한편, 정상회담, 공적개발원조, FTA 추진 등으로 산업계에 지원을 강화해왔음.

–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대규모의 경제사절단 등을 정기적으로 인도에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과 인도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있음.

– 2006년부터는 인도 및 일본 정부간 최대 투자협력 사업인 델리-मुंबई 산업회랑(DMIC: Delhi · Mumbai Industrial Corridor) 사업이 추진됨.

글상자 1. 델리-मुंबई 산업회랑 프로젝트 개요⁵⁾

- DMIC 프로젝트는 인도 델리와 मुंबई 간 약 1,500km의 화물전용 철도를 건설하고, 그 주변 지역에 공업단지, 물류단지, 발전소, 항만, 주택,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 계획임.
- 투자·산업 단지가 연계될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 첨단 인프라와 산업 및 친환경 시설이 통합된 스마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음.
- 개발대상지역은 6개 주(州) 총 24개 지역으로서 인도 영토의 16% (약 51만km², GDP의 40%)에 해당하고, 인도 진출 일본기업의 80%가 밀집해 있음.
- 총사업규모는 약 900억 달러로 인도정부는 2018년까지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며, 이 중 700억 달러는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임.

– 2010년 3월에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육·해·공 교통망과 물류망 정비, 발전소 및 공업단지 건설, 자원 및 에너지개발 등이 포함된 ‘아시아 중합개발계획⁶⁾이 발표됨.

■ 이번 일·인 정상회담에서는 FTA 협정 타결 외에 원자력 및 희토류 개발, UN에서의 협력, 비자수속의 간소화 등이 추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간 관계가 긴밀해짐.

– 인도의 핵발전소 증설계획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이번 서명식에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양국간 원자력발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타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냄.

–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희토류개발에 양국이 협력하는 한편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공동진출하여 UN개혁에도 앞장서자는데 또다시 합의함.

5) 송영철 외(2010), “인(印)·일(日) 델리 · मुंबई 산업회랑 개발사업 동향과 시사점”, 지경경제포커스, 제10-16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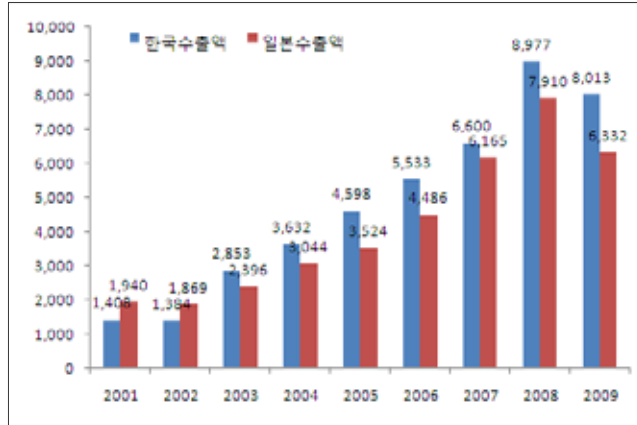
6) ‘아시아중합개발계획’은 ASEAN-중국-인도를 포함하는 광역 인프라 정비 계획으로써 각 권역별로 육·해·공 교통망과 물류망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임. 김규판 외(2010), 「최근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평가」, 오늘의 세계경제 제10-09호 참고.

4)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기존 국가(ASEAN 10개국+한국+중국+일본)와 신규참여국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함.

3.

가. 교역 부문

그림 1. 한국, 일본의 대인도 수출 추이 (단위: \$mn)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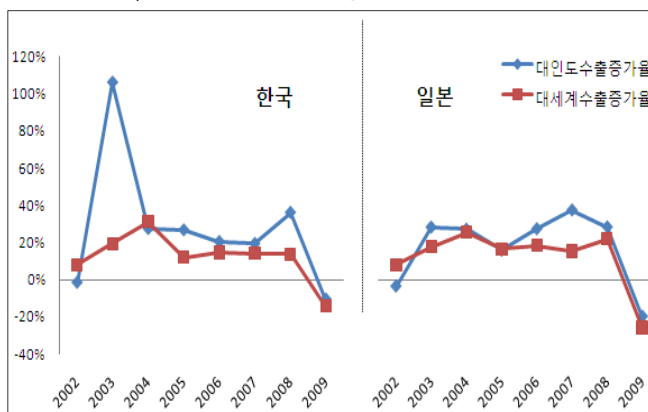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양국의 대인도 수출은 특히 2000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졌으며, 2009년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금액은 각각 80억, 63억 달러임.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대인도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일본의 수출액을 추월하기 시작함.

■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이 양국의 대 세계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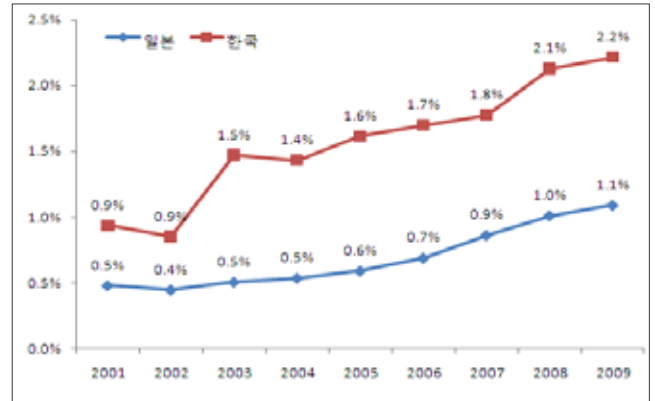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증가율은 각각 27.9%, 17.6%로 세계 수출증가율인 12.3%, 12.1%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 한국, 일본의 대인도 수출증가율



자료: CEIC.

그림 3. 한국, 일본의 총수출 대비 대인도 수출 비중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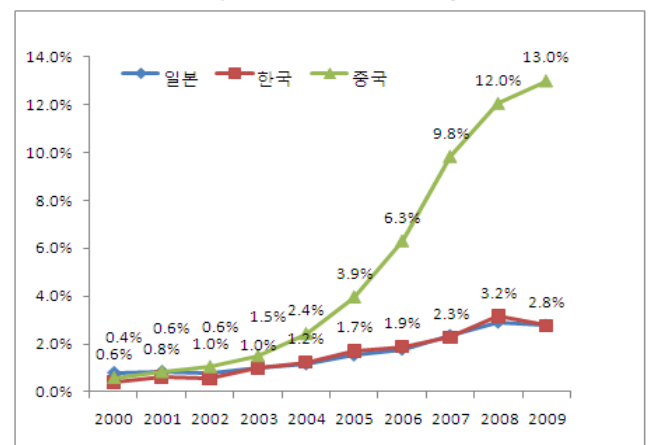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인도 수출 비중 역시 증가추세에 있음.

- 2009년 기준 한국의 전체수출 대비 대인도 수출 비중은 2.2%로 일본의 1.1%보다 높음.
- 양국의 전체수출 대비 대인도 수출 비중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시장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양국에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인도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중국에 비해 매우 낮음.

- 2009년 기준 인도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2.8%, 2.7%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 반면 2009년 중국의 인도수입시장 비중은 13%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인도 수입시장 내 한국과 일본의 비중



자료: CEIC.

- 한편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대인도 수출 경합정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⁷⁾를 살펴보면, 한·중, 한·미 보다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한국과 주요 국가 간 대인도 수출경합도지수 비교(2009년 기준)

	한·일	한·중	한·미
ESLab	65.0	56.9	49.0

주 : 1) HS2단위로 계산함.

2) 국가간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ESLab = \min(Xia/Xa, Xib/Xb) \times 100$, 단, Xia/Xa : a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상품의 수출비중임.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정도가 높음.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로 계산.

-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출 상위품목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남.

- HS2단위 기준으로 양국의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4개 품목인 전기기기,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이 서로 겹치며, 이들의 전체수출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 58%, 일본은 약 62%임.
- HS 4단위로 구분했을 때에도 상위 12개 품목 중 6개가 동일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의 전체수출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 약 34%, 일본 약 16%에 이름.
-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HS 8708)과 통신기기(HS 8517)임.

표 5.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입시장 경쟁 비교

		한국(2009년 기준)		
		HS	품목명	비중(%)
대인도 수출 상위품목 순위 (비중)	1	85	전기기기 및 부품	16.4
	2	84	기계 및 부품	15.3
	3	72	철강	13.4
	4	87	자동차부품	12.8
	5	39	플라스틱	8.2
	6	27	광물성연료	5.7
	7	29	유기화합품	4.8
	8	73	철강제품	3.8
	9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3.6
	10	40	고무와 그 제품	2.0
		총 비중		66.3

7) 비교대상인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100에 가깝고 수출이 경쟁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함.

표 5. 계속

		일본(2009년 기준)		
		HS	품목명	비중(%)
대인도 수출 상위품목 순위 (비중)	1	84	기계 및 부품	26.9
	2	85	전기기기 및 부품	16.2
	3	72	철강	11.0
	4	87	자동차부품	7.4
	5	90	기타기계류	5.3
	6	73	철강제품	4.5
	7	29	유기화합품	4.1
	8	39	플라스틱	3.6
	9	40	고무와 그 제품	2.5
	10	27	광물성연료	2.3
		총 비중		66.9

HS4단위 분류 수출 상위 품목				
순위	일본		한국	
	품목(HS4)	비중	품목(HS4)	비중
1	8708	6.3	8708	12.7
2	7225	3.1	8517	8.5
3	8517	2.9	7208	5.6
4	8542	2.3	2710	5.5
5	7210	2.2	8901	3.5
6	8409	1.8	7209	3.1
7	8413	1.7	7308	2.6
8	8429	1.7	8479	2.3
9	7209	1.6	3904	2.0
10	7304	1.5	2917	1.9
11	8479	1.5	7210	1.9
12	7208	1.4	8528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 기계류(SITC 744, 723, 743, 741), 철강 및 금속제품(SITC 675, 679), 내연 피스톤 기관 및 부품품(SITC 713)이 인·일 FTA 체결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제품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인도 30대 상위 수출 품 중 서로 겹치는 15개 품목에 대한 RCA⁸⁾분석 결과로써, 특히 일본의 수출특화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품목임.
- 통신기기(SITC 764) 및 전기회로 개폐기기(SITC 772)의 경우 수출 RCA 수준이 비슷하여 인·일 FTA 발효 이후에도 인도시장에서 높은 경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8) 일반적으로 RCA는 해당국가의 특정품목이 상대국에 수출특화인지 수입특화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RCA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동일 품목 간 경쟁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RCA를 통한 양국 간 우위, 열위, 경합정도를 간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예를 들어 RCA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양국 특정 품목의 수출특화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함. 품목별 RCA분석결과는 <참고> 참조.

- 석유 및 석유제품(SITC 334)의 경우 양국 모두 대인도 수출비중이 크지 않고 RCA 수준이 높지 않아 영향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우리나라는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부문에서 RCA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인·일 FTA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인도 현지진출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이 인·일 FTA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임.

표 6. 우리나라와 일본의 RCA 비교를 통한 경합도 분석

구분	SITC3	한국	일본	한국 RCA	비 교	일본 RCA
		수출/수입				
안전	674	1709.5	692.5	1253.3	>	461
	673	1469.6	266.7	1077.4	>	177.5
	784	70.6	11.5	51.8	>	7.6
	695	35.4	15.9	25.9	>	10.6
	728	15.6	9.9	11.4	>	6.6
잡식 우려	744	168.4	587.5	123.4	<	391.1
	723	31.2	80.1	22.9	<	53.3
	741	12.3	37.1	9	<	24.7
	675	8	577.5	5.8	<	384.4
	743	7.2	20.8	5.2	<	13.8
	679	3.5	39	2.5	<	26
	713	1.3	17.8	0.9	<	11.9
경합	334	0.2	0.5	0.1	<	0.3
	764	78	99.2	57.2	<	66
	772	5.3	8.2	3.9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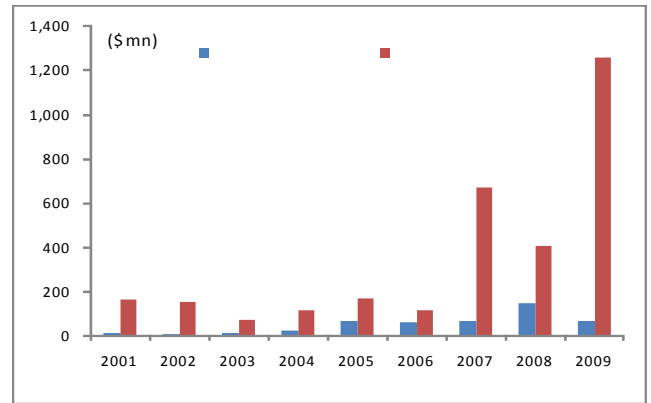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데이터 바탕으로 저자 계산.

나. 투자 부문

■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가 한국의 대인도 투자보다 훨씬 많고 증가율 역시 최근에 더욱 빨라짐.

-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07년 이전까지 2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7년 6억 7천만 달러, 2009년에는 약 12억 달러까지 급증함.
-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약 1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6,600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함.

그림 5.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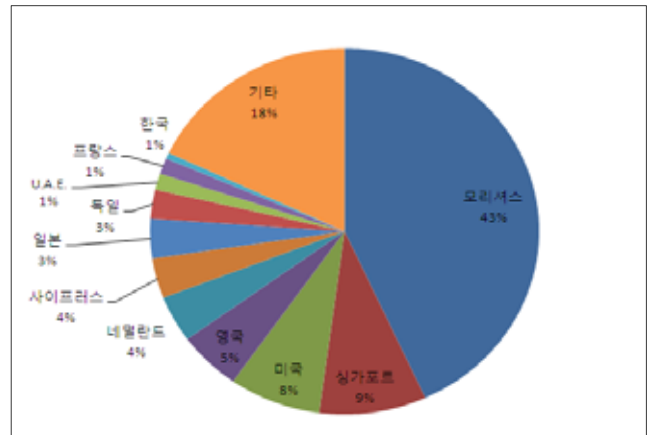


자료: 인도산업정책지원부(DIPP).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의 대인도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약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5억 7천만 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많음.

- 누적금액 기준 일본과 우리나라의 투자가 인도 전체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 1%이며, 국가별 순위는 일본이 7위, 우리나라가 16위임.

그림 6.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비중 및 순위



순위	국가	누적금액(\$ mn)
1	모리셔스	46,335
2	싱가포르	9,639
3	미국	8,137
4	영국	5,712
5	네덜란드	4,392
6	사이프러스	3,694
7	일본	3,673
8	독일	2,739
9	U.A.E.	1,521
10	프랑스	1,497
16	한국	577

주: 누적금액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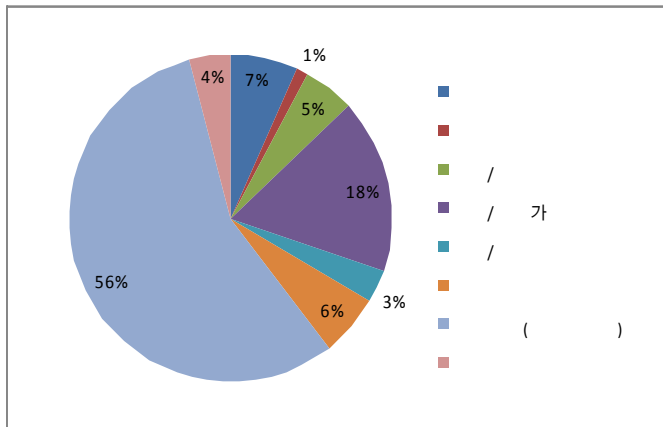
자료: 인도산업정책지원부(DIPP).

■ 한편 산업별 대인도 투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양국 모두 수송기기(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 투자가 50% 이상 편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수송기기, 철강, 식료품, 기계류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고, 일본은 수송기기, 화학, 전기기기, 기계류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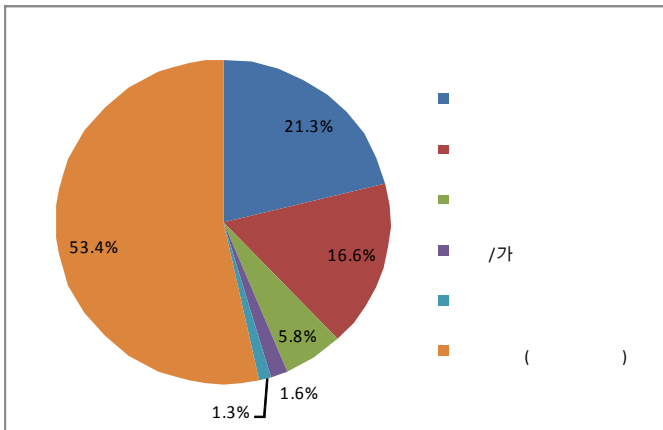
– 투자부문 역시 양국의 상위 투자업종인 수송기기, 전자/전기기기, 화학, 철강 등이 겹쳐있어 해당부문의 경쟁심화가 예상됨.

그림 7. 한국의 대인도 업종별 투자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그림 8. 일본의 대인도 업종별 투자 비중



자료: 일본 재무성 국제수지 통계.

4. 가

가. 평가

■ 인·일 FTA 최종합의에 대해 인도는 한·인도 CEPA와 인·ASEAN FTA 이상의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음.

– 싱 총리는 인·일 FTA 공식서명을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

하고 “일본은 인도의 주요 경제파트너”임을 강조함.

– 이는 인도가 인·일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한·인 CEPA, 인·ASEAN FTA 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표 7. 주요국 FTA 체결로 인한 인도의 예상이득 비교

	상품부문 양허수준	인도의 예상이득
한·인도 CEPA	- 수입금액 기준 90% 개방 - 품목수 기준 93.2%	- 전문인력 진출 • 163개 전문인력 개방에 합의
인·일 FTA*	- 수입금액 기준 97%(예상)	- 전문인력 개방 • 간호사 등 의료인력 포함에 대한 재협상 합의 - 복제약 진출 확대
인·ASEAN FTA	-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 80%	- 상품부문에 협상이 제한

주: * 협정문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협상결과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보도자료 내용 종합 정리 및 한·인도 CEPA협약문 참고.

–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및 복제약 진출 부문에 대해, 인도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인·일 FTA 체결로 일본 복제의약품 시장 진출과 전문 인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일본의 복제약 시장규모는 약 6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인도의 대일본 의약품 수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간호사 및 노인치료사 부문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인도에서는 한·인도 CEPA 이후 인·일 FTA를 서두르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0년 9월 16일 인도 Economic Times에 의하면, “일본의 이해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렀다”라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일본 복제약 수출증대 전망을 내놓기도 함.⁹⁾

■ 일본은 한·인도 CEPA 이후 인·일 FTA를 비교적 신속하게 체결하여 인도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신성

9) 관련기사: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Commerce-Ministry-to-seek-Cabinet-nod-soon-for-Indo-Japan-trade-pact/articleshow/6565933.cms>

장동력 발굴, 중국견제 등 다각적인 통상외교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림.

- 일본의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열연강판, 냉연강판), DVD 플레이어, 트랙터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인도 내수시장 공략과 함께 현지에서 생산하는 일본업체의 비용삭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일본 자동차공업회장은 “7.5%에 달하던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인도 자동차시장 점유율 45%인 스즈키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업체가 2위사인 한국의 현대(16%)를 크게 따돌리고 인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함.
- 일본 철강연맹회장은 철강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면, 인도 철강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자동차 강판 저가 공급이 가능해져 일본 자동차업체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철강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망 등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대인도 인프라 사업도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인·일 FTA 및 인·일 정상회담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아시아 경영전략을 진일보시키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통상외교의 목표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됨.
- 인·일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변화와 희토류 수입이 연동되는 상황에서 인도에서의 희토류 개발 및 기술교류에 합의하고, 원자력발전 수주나 부품 수출이 가능한 협정을 교섭하는 등 대외통상정책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일본 정부는 자평함.
-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은 이 FTA로 ASEAN 수출거점을 추가한 동시에 아시아 분업구조를 확대, 재개편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일본업체에서는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한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 이번 FTA를 통해 ‘헨디캡(현지에서의 열위)을 해소’ 하고 대등한 경쟁 여건하에서 수출 향상의 기반을 닦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스즈키사는 한·인도 CEPA 체결이후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쫓기 위해 인·일 FTA의 신속한 협상타결을 주장해왔음.

나. 우리의 대응

■ 인·일 FTA 체결로 한·인도 CEPA의 선점효과가 약화되는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

- 인도는 한·인도 CEPA 이후 일본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밖에 최근 EU, 말레이시아와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

■ 인·일 FTA 협정문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훼손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강구해야함.

- 협정문이 공개되면 상품무역 부문에서 양허수준 즉, 품목 및 금액기준 양허율, 관세감축 정도 및 기간, 원산지 규정, 반덤핑 등 무역구제 등을 한·인도 CEPA 협정문과 꼼꼼히 비교·분석해야함.

- 서비스무역 부문에 대해서도 특히 개방부문에 대해 한·인도 CEPA 양허안과 면밀히 비교분석해 봐야함.

- 한·인도 CEPA에서 인도 측은 총 11개 분야 81개 영역,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104개 영역을 개방하였음.

- 투자부문은 한인도 CEPA에서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보장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낮음.

■ 또한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 및 이행 수준 제고를 인도측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 상품무역부문에 명시된 재검토(review)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협정문 2.4조의 재검토 조항에는 제3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할 경우, 추가협상을 통해 인도 측 양허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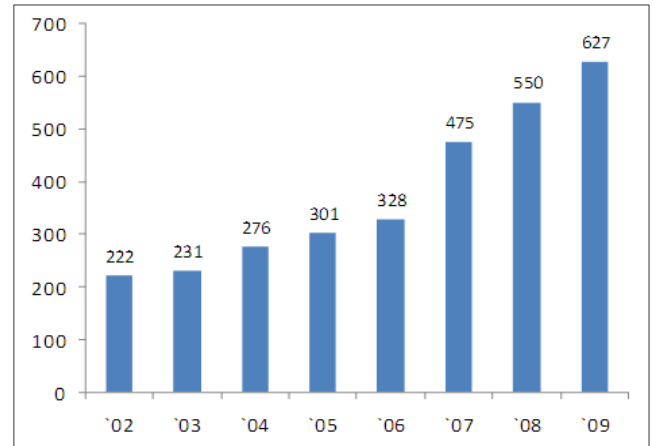
- 인도와 2005년부터 FTA를 발효시킨 싱가포르를 재검토 조항을 활용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양허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음.

- 매년 개최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등을 통해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함.
- 특히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 등 통관행정 등에서 상호합의를 통해 이행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이 많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개선시킨다면 인·일 FTA와의 시간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더 늘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협정문에서 합의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세위원회 설치 등을 조기에 실현시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에 기여해야함.
- 특히 수출비중이 높으며 인·일 FTA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상위 수출품목 중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거나 일본보다 RCA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인·일 FTA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일본에 비해 RCA 열위에 있는 기계류(HS 84)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2위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수출 비중이 15.3%에 달함.¹⁰⁾
- 또한 RCA 수준이 비슷하여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기기(SITC 764)부문 역시 대인도 수출의 10.7%를 차지함.¹¹⁾
- 또한 인·일 FTA로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인도 진출보다 가속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2009년 기준, 인도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627개에 달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2009년 10월 말 기준,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 수는 417개로 일본보다 적음.
- 최근 언론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소니 LCD TV가 삼성, 엘

지를 추월하여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¹²⁾ 그동안 인도 시장에서 주춤했던 일본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 진출, 특히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인도 경제 및 산업 정보에 대한 조사 활동도 보다 강화되어야함.

그림 9. 인도 내 일본기업 수 증가 추이



자료: 일본 외무성.

12)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1006004481&subctg1=&subctg2>

10) [표 4]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수입시장 경쟁 비교를 참고.

11) [표 8]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및 RCA 참고.

〈참고〉

한·인, 일·인 현시비교우위(RCA) 분석결과

■ 인·일 FTA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도 시장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무역경합 정도를 현시비교우위를 통해 측정함.

- 한국과 일본의 특정산업이 대인도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특정산업의 대인도 교역이 수출특화인지 수입특화인지 비교할 수 있음.

$$\text{현시비교우위(RCA)} = \frac{X_{iINk} / X_{iIN}}{M_{iINk} / M_{iIN}}$$

- ▷ X_{iINk} : i국의 대인도(IN) k산업 수출
- ▷ X_{iIN} : i국의 대인도(IN) 총 수출
- ▷ M_{iINk} : i국의 대인도(IN) k산업 수입
- ▷ M_{iIN} : i국의 대인도(IN) 총 수입

- RCA가 1보다 클 경우 해당국가의 해당산업에 대해 I국이 수출비교우위가 높음을 뜻하고, 1보다 작을 경우 비교우위가 낮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을 비교할 때 두 국가의 RCA가 높고, 비슷한 수준의 지수를 가질 경우 그 산업은 경합도가 높다고 간주할 수 있음.
- 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 및 흐름 역시 비정상적이었음을 감안하여 2008년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RCA를 분석함.

■ SITC3단위로 구분한 일본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을 살펴본 결과 기계류, 반도체, 철강제품류 등의 RCA가 높게 나타남.

- 상위 10대 품목 중 가공공작기계(SITC 731), 철강(SITC 673, 675)의 RCA가 세 자릿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일본이 해당 품목에 대해 높은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대인도 무역구조는 석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한 상위 30대 품목 모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30대 품목이 전체수출 비중의 72.1%,

10대 품목이 38.9%를 차지함.

표 1. 일본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및 RCA

순위	SITC3	품목	수출 비중	수출/수입	일본 RCA
1	334	석유 및 석유제품	7.0%	0.5	0.3
2	784	자동차부품	5.1%	11.5	7.6
3	731	가공공작기계	4.6%	4073.2	2711.6
4	728	특수산업용 기계	3.8%	9.9	6.6
5	723	특수산업용기계 (토목공사용)	3.8%	80.1	53.3
6	776	반도체, 트랜지스터	3.4%	80.0	53.2
7	874	계측, 제어기기	3.0%	30.7	20.4
8	67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9%	266.7	177.5
9	675	합금철의 평판압연제품	2.7%	577.5	384.4
10	713	내연 피스톤기관 및 부분품	2.5%	17.8	11.9
11	772	전기회로 개폐기기	2.3%	8.2	5.4
12	931	특수취급물	2.3%	6.0	4.0
13	724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2.3%	19.6	13.0
14	679	철강의 튜브,파이프 및 중공프로파일과 튜브	2.2%	39.0	26.0
15	674	철강제품 (클래드, 도금, 도포한 것)	2.2%	692.5	461.0
16	737	금속공작기계	2.1%	639.7	425.9
17	743	공기 또는 가스압축기 및 선풍기	2.1%	20.8	13.8
18	764	기타통신장비	2.1%	99.2	66.0
19	733	금속, 소결한 금속탄화물	1.7%	16730.8	11137.8
20	695	수공구 및 기계용공구	1.6%	15.9	10.6
21	778	전기기계, 장치	1.6%	12.6	8.4
22	781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1.5%	15.0	10.0
23	748	전동축	1.5%	11.5	7.7
24	741	가열, 냉각장치	1.4%	37.1	24.7
25	744	기계식 취급장치	1.2%	587.5	391.1
26	742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1.1%	54.7	36.4
27	882	사진 및 영화비품	1.0%	-	-
28	726	인쇄 및 제본용기계	1.0%	3.7	2.4
29	676	철강봉, 앵글, 형강	0.9%	26.5	17.6
30	747	파이프, 보일러동체, 탱크, 배트 등에 사용하는 탭	0.9%	3.6	2.4
상위 10개 품목 비중			38.9%		
상위 30개 품목 비중			72.1%		

주: SITC 품목명은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로 계산.

■ SITC3단위로 구분한 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을 살펴본 결과 일본과 같이 철강제품류, 기계류 등의 RCA 높게 나타남.

- 상위 10대 품목 중 철강제품(STIC 673, 674), 자동차부품(STIC 784), 통신장비(SITC 764)의 RCA가 높게 나타남.

- 한국의 대인도 무역구조 역시 석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한 상위 30대 품목 모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위 30대 품목이 전체수출 비중의 79.7%, 10대 품목이 59%를 차지해 주요품목에 대한 편중 정도는 일본보다 높게 나타남.

표 2.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 및 RCA

순 위	SIT C3	품목	수출 비중	수출/ 수입	한국 RCA
1	784	자동차부품	14.3%	70.6	51.8
2	764	기타통신장비	10.7%	78.0	57.2
3	334	석유 및 석유제품	8.7%	0.2	0.1
4	673	철강제품	7.4%	1469.6	1077.4
5	793	선박	6.3%	-	-
6	728	특수산업용 기계	3.1%	15.6	11.4
7	674	철강제품 (클래드, 도금, 도포한 것)	2.4%	1709.5	1253.3
8	641	종이 및 판지	2.1%	19.0	14.0
9	679	철강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과 튜브	2.1%	3.5	2.5
10	232	합성고무, 재생고무	1.9%	27.5	20.1
11	675	합금철의 평판압연제품	1.8%	8.0	5.8
12	723	특수산업용기계(토목공사용)	1.5%	31.2	22.9
13	711	원동기기 및 설비	1.4%	93.2	68.3
14	513	유기화합물	1.3%	4.6	3.4
15	573	플라스틱	1.1%	1622.9	1189.8
16	571	플라스틱-에틸렌의 중합체	1.0%	7135.1	5230.9
17	773	전기기기장치	1.0%	31.3	22.9
18	741	산업용 일반기계	1.0%	12.3	9.0
19	575	기타 플라스틱	1.0%	18.7	13.7
20	562	비료	1.0%	1573.9	1153.8
21	695	수공구 및 기계용공구	1.0%	35.4	25.9
22	749	비잔식 기계 부분품 및 부품	1.0%	237.6	174.2
23	713	내연 피스톤기관 및 부분품	0.9%	1.3	0.9
24	743	펌프공기 또는 가스압축기 및 선풍기	0.9%	7.2	5.2
25	761	텔레비전 수상기	0.9%	1377.9	1010.1
26	682	동	0.8%	11.6	8.5
27	691	금속제품(알루미늄 구조물)	0.8%	256.6	188.1
28	744	기계식 취급장치	0.7%	168.4	123.4
29	574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 르와 에폭시수지	0.7%	73.5	53.9
30	772	전기회로 개폐기기	0.7%	5.3	3.9
상위 10개 품목 비중			59%		
상위 30개 품목 비중			79.7%		

주: SITC 품목명은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로 계산.